

조선대병원, 장흥서 찾아가는 어촌 의료봉사



“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중)은 최근 수협재단의 협조를 통해 장흥군 회진면 회진다목적홀 1층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이번 장흥군 의료봉사는 어업인에 대한 의료 지원을 통해 어촌지역사회 유지 발전과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했다. 의료봉사단은 총괄을 맡은 정재한 대외협력팀장(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을 비롯해 가정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교수진과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23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의료봉사 활동은 200여 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료상담과 투약 ▲혈압 및 당뇨 체크 ▲물리치료 ▲영양제 수액 주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돼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동구, 산수문화마당 일원서 ‘책소풍’ 행사



2023 책 읽는 동구 ‘책소풍’ 행사가 18일 광주 푸른길 산수문화마당 일원에서 열렸다. (사진) 광주시 동구는 지난 2020년부터 지역민이 함께 선정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 운동 전개로 주민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책 읽는 동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임선우의 ‘유령의 마음’, 곽재식의 ‘지구엔 팬텀아, 우리가 문제지’ 등 2023 올해의 책과 구민 권장도서 전시회가 열

렸으며 올해의 책 도서 공모전 결과전시와 시상식도 함께 개최됐다. 작가와와의 만남 행사도 펼쳐졌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미안해’의 김병하 작가와 ‘천하제일 치킨쇼’의 이희정 작가가 참여해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나눴다. 또 ‘동구의 시간을 걷다’ 등 인문도시 동구 기록화 사업 결과물 전시와 오감으로 즐기는 책 문화체험, 가족 도서 퀴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지법·광주지방변호사회 실무협의 간담회



광주지방법원(법원장 박병태)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는 지난 14일 재판질차 등의 실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개선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미래를 향한 청소년의 비상’ 전남청소년박람회 성료



전라남도청소년박람회가 지난 15일부터 1박2일간 순천시 해룡면 전남도 동부청사 일원에서 ‘자연을 품은 전남! 미래를 향한 청소년의 비상!’을 주제로 열렸다. <전남도 제공>

장성 출신 원로배우 변희봉 별세



원로배우 변희봉(본명 변인철·사진)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과거 완치 판정을 받았던 췌장암이 재발해 투병하던 끝에 이날 오전 세상을 떠났다. 1942년 6월 8일 전남 장성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연극배우로 활동하다가 1966년 MBC 성우 공제 2기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방송 드라마에 진출해 ‘제1공화국’ (1981) ‘조선왕조 오백년: 설중매’ (1985) ‘찬란한 여명’ (1995) ‘허준’ (1999)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플란다스의 개’ (2000)와 ‘살인의 추억’ (2003) ‘괴물’ (2006) 등에도 출연하며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조선왕조 오백년: 설중매’로 제21회 백상예술대회 TV부문 인기상을 받았고, ‘괴물’로 제27회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2020년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인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연합뉴스

‘효심이네’ 출연 배우 노영국 별세



KBS 2TV 주말드라마 ‘효심이네 각자도생’에 출연 중이던 배우 노영국(본명 노길영·사진)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5세. ‘효심이네 각자도생’의 홍보대행사 블리스미디어는 “오늘 새벽 고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이날 밝혔다.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 친지와 동료 선배배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를 예정이다. 1948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한 고인은 1975년 MBC 7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고인은 ‘수사반장’ (1975) ‘여명의 농동자’ (1991) ‘제국의 아침’ (2002) ‘대왕 세종’ (2008) ‘태종 이방원’ (2021) 등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했다. 지난 16일 방송을 시작한 KBS 2TV ‘효심이네 각자도생’에서는 대기업 태산그룹의 회장 강진범 역할로 출연 중이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우아한 제국(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꾸러기 탐구생활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국회 인사청문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25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1	0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순정복서(재)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연인 파트1 TV무비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꽃필 영화가 좋다 베스트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40 이 맛에 산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쏠! 내 친구는 빅파이브(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라피(재)	00 한국인의 밥상(재)	10 트로트 클래스 3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0 분방을 보자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50 여기는 황저우 <축구남자 E조 조별리그>	00 MBC 뉴스데스크 <축구남자 E조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쿠웨이트>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우당탕탕 패밀리			00 SBS 황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쿠웨이트>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4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심야괴담회	30 손대면 핫플 - 동네맛집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55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재)	50 100분토론	
12	00 사랑의 가족(재) 55 생활의 발견			10 열린예술무대 뒤란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그린조끼 구조대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7:55 한글용사 아이이야(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10 미라클러스: 레이디디버와 블랙캣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귀하신 몸	18:40 EBS 뉴스
07:00 뽕뽕뽕 뽕뽕뽕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00 한국의 둘레길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20 고향민국
07:30 출동! 슈퍼월스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극한직업
07:45 용감한 소방차 레이 최강우주소방대	15:15 EBS 평생학교 2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댕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16:00 해피 아일랜드 브루나이 -브루나이 골든 루트>
08:20 한글용사 아이이야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21:30 한국기행
08:35 뽕뽕뽕 뽕뽕뽕	16:40 당동댕 유치원(재)	<높리에 삽니다 2부 말속이 화산마을에 가다>
08:50 로보카 폴리	17:00 페파 피그	21:50 EBS 다크프라이미
09:20 인간과 바다	17:10 오구오구 내 새끼	22:45 건축탐구 - 집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애코의 요수리동요	
10:30 한국기행	17:25 뽕뽕뽕 뽕뽕뽕(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9일 (음 8월 5일 庚辰) ☎ 010-9790-8237

<p>36년생 생소한 것에는 조심해야 하느니라. 48년생 하루가 다르게 변할 수도 있다. 60년생 새로운 관계로 재정립될 가능성이 높다. 72년생 귀인을 만나거나 귀물을 접할 수도 있는 날이다. 84년생 별것 아니니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되겠다. 96년생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단계이니 하나 하나 심사숙고하라. 행운의 숫자 : 42, 67</p>	<p>42년생 가까스로 벗어나게 되는 형상이다. 54년생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66년생 지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78년생 철저하게 제어해야만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다. 90년생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느니라. 02년생 머지않아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16, 79</p>
<p>37년생 진용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49년생 대양은 비에 젖지 않는 법이다. 61년생 당해 문제가 원활치 못하니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73년생 보다 큰 행보로 임해야 할 시점이다. 85년생 의도적으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으니 잘 살펴보아라. 97년생 불쾌와 기쁨이 더불어서 울 수 있으니 반갑반흥이로다. 행운의 숫자 : 07, 92</p>	<p>43년생 기분에 충실했을 때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수 있다. 55년생 주의한다면 의외의 손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67년생 가까운 이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보인다. 79년생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다방면에 득이 있다. 91년생 넉넉하게 마련해두는 것이 알차다. 03년생 집착은 발목을 잡을 뿐이다. 행운의 숫자 : 39, 71</p>
<p>38년생 무리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니라. 50년생 형평성 있는 시각이 현명한 판단을 낳으리라. 62년생 전혀 다른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음을 알아. 74년생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능해 볼 필요가 있다. 86년생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쉽다. 98년생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27, 99</p>	<p>44년생 국면의 타개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56년생 똑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태도에 따른 차이가 크다. 68년생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80년생 짐작만으로 판단한다면 큰코다칠 수다. 92년생 벗어나지 않으면 후회하리라. 04년생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무리가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86</p>
<p>39년생 안정을 구가하는 평안함이 보인다. 51년생 장담한다면 자기당착에 빠질 우려가 가다. 63년생 사소한에서 벗어났을 때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 75년생 절실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난하다. 87년생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99년생 몰라도 될 일을 알게 되어 걱정하리라. 행운의 숫자 : 04, 87</p>	<p>45년생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밝히면 그만이다. 57년생 절대로 믿어 왔던 것에 의심이 가기 시작하리라. 69년생 지금까지 당연한 것이어서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81년생 성실으로써 물리칠 수 없는 곤란은 거의 없느니라. 93년생 목표를 향해서 발돋움을 하게 된다. 05년생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는 기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1, 55</p>
<p>40년생 사소한 것은 차치하고 핵심 가치에 치중하는 것이 실속 있다. 52년생 핵심 가치를 집약할 줄 아는 요령이 필요하다. 64년생 만사를 제쳐두고 우선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76년생 바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느니라. 88년생 가회, 괄목상대할 만하다. 00년생 오랫동안 소원해 왔던 바를 이룰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8, 51</p>	<p>34년생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시끄러워진다. 46년생 경험에서 얻어지는 인식이 유용하리라. 58년생 공전의 판국을 이끌만한 찬스이니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다. 70년생 임시 미봉책은 두 발일시킬 것이니 제대로 하자. 82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마라. 94년생 길조가 시원스럽게 내리 뻗는다. 행운의 숫자 : 38, 82</p>
<p>41년생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하는 격이다. 53년생 부담 없이 처리해도 무방하다. 65년생 체면 차리려 하지 말고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볼 일이다. 77년생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보인다. 89년생 가장 근본적인 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01년생 즐겁고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기쁨을 만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72</p>	<p>35년생 취약점이 보이니 서둘러 보완해야겠다. 47년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만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59년생 한 곳을 보지 말고 다각적으로 살펴보자. 71년생 매우 부담스럽고 박찬 하루가 될 것이니라. 83년생 목적하는 바는 보이지 않고 불편함만 나타난다. 95년생 주관과 소신은 가지도 대세에 평승하라. 행운의 숫자 : 21, 54</p>